

哭聲

脚本・監督 羅泓軫

2013年9月12日 終

본 이야기는 전라남도의 '곡성'이란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원래 谷城이 올바른 지명의 표기이나
본작에선 동일한 발음이지만 그 의미가 다른 罽磬이라 표기하였다.
이를 직역하자면 '소리 내어 우는 소리'일 텐데
필자는 상喪을 당한 이들이 내는 '곡소리'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누가복음 24 장 37-39 절

불분명한 것엔 의혹이 따르고
그것의 진실은 누구도 모른다.

1. 所聞 소문

풍경이 기가 막힌 섬진강변. 낚시장비들을 펼쳐 놓은 남자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중년을 넘어선 듯 보이는 남자는 신경이 거슬리는지 저 편을 자꾸 쳐다 보았는데, 그곳에선 10 명쯤 되는 성인남녀가 모여 큰 술에다 뭔가를 끓여먹고 있었다. 소주병이 나뒹굴고 아주머니들 특유의 웃음소리들도 크게 들려오는 것이 전형적인 시골 단체의 나들이 모습이였다. 남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소음이 싫다는 듯 뭐라 중얼거렸는데 극도로 신경질적인 것이 매우 불안한 정신 상태를 지닌 이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그러던 차에 저편의 일행들 중 한 명의 여인이 스테인리스 대접에 건더기가 가득한 빨간 국물을 담아 왔다. 다른 손엔 소주도 있었다. 대접을 건네더니 소주를 따라주며 말을 거는 여인은 취기가 가득했으나 그 말들은 선의로 가득했다. 이런 여인을 남자는 어찌 보면 무서울 수도 있는 시선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웃으며 물었다.

“이거 개고기지?”

일본말이었다. 이 남자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스런 일본어가 그를 일본인으로 믿게 만들었다. 그의 말을 여인은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일본인이냐며 좋아할 뿐이었다.

“이 개고기 먹고 떼씹하러 갈 생각이지?”

여인은 상대방의 미소만을 알아볼 수 있을 뿐 내뱉은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순 없었다. 되지도 않는 일본 인사말을 떠들어대며 반가워 할 뿐이었다.

“더럽고 음탕한 암캐 년.”

이 말을 여인이 따라 하며 웃자 일본인도 크게 따라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여인의 치마 속에 불쑥 손을 넣었다. 놀란 여자가 나자빠지며 고태도 못 지르고 바라만 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일행을 슬쩍 돌아보더니 그녀를 향해 추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풍경이 기가 막힌 섬진강의 강변에서였다.

2. 谷城 곡성

읍내의 허름한 정육점에서 중년의 남자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대낮부터 얼굴이 달아오른 이들은 군복, 경찰복, 추리닝 등 가지각색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정육점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중이었다.

“그러서. 워찌됐는디?”

군복을 열어 젖힌 중년의 남자가 기분이 언짢다는 듯 주인에게 물었다.

“그러가 그 나자빠진 아줌마를 갈대밭으로 끌고 가 그 짓을 하려는디, 재수 좋게 그 꼴을 같이 온 남자들이 봐부렀네? 그래 죄다 달려가 죽도록 쳐밧고 두들겨 패버렸다는 거 아녀. 그러가 지금도 보은 한쪽 다릴 절잠여. 그것이 그래서 그런겨.”

막걸리를 들이킨 군복남의 기분이 더욱 언짢아 진 것 같았다.

“그딴 짓을 헨 놈이 아직도 이 동넬 싸돌아다닌다고?”

“.....”

“진짜여?”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구. 니도 알고 있었어?”

군복을 입은 남자가 마주 앉은 전종구라는 남자에게 물었다.

“침 듣는디 들으니께 열불이나네. 그 씨부럴 놈.”

“이런 니미럴... 니 그 말 진짜제?”

“그렇당께.”

“그 쪽바리 새끼... 칼 갖고 와. 내 당장에 쓸어 죽일텨께. 여가 어디라고 왜노무 새끼가...”

군복남이 일어서자 진지하던 모두가 크게 웃어댔다. 모두가 술에 취한 다혈질의 군복남을 놀린 듯 싶었다. 그런데 원래 좀 모자란 인간이었는데 군복남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주인 앞의 거대한 칼을 뺏어 들더니 설쳐대기

시작했다. 들어오던 손님이 놀라 자빠지고 그의 아이가 울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다.

“니는 이 빌어 처먹을 놈아. 쓸데없는 구라를 쳐 갖고!”

군복남을 말리던 전종구가 웃으며 주인을 나무랐다.

“야 진짜랑께.”

“에라 이 호랑당 말코걸은 새끼야.”

잠시 후. 전종구는 여전히 소란스런 정육점을 나섰다.

“워딜 벌써 가.”

“가야 디여. 오늘 아버지 제사여.”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러자 저 뒤에 숨어 있던 여자 아이가 몰래 다가와 후다닥 그의 뒤에 올라타며 소리쳤다.

“아버지!”

아이는 활짝 웃으며 전종구를 끌어 안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우리 강아지 아닌가?”

“술 먹고 오토바이 몰라고?”

“이. 집에는 가야지.”

“엄마한테 걸리믄 디지지 았을까?”

“안 걸리믄 되지.”

아이를 태운 전종구는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읍내를 벗어나자 농지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내는 아버지가 술 먹고 오토바이 몰 때가 젤 멋져!”

“뭘라?!”

“아버지 멋지다고!”

전종구가 크게 웃었다.

“나는 난중에 꼭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할꺼!”

아름다운 곡성의 풍경을 뒤로 하고 해맑게 웃는 부녀 간의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3. 最初の事件 최초의 사건

기괴한 모습이었다. 마을 골목길을 걷는 이 남자는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가 불분명한 모습이었다. 폭탄을 맞았는지 피부의 어딘가는 검고, 어딘가는 빨간 속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개중엔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다. 머리카락은 군데군데가 몽탕이로 빠져나가 있었고, 그곳엔 누런 고름같은 액체가 뒤덮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목직한 물체들이 가득 담긴 자루를 끌고 있었다. 베이지색의 자루였는데 누군가의 혈액이 잔뜩 배어 나오고 있어 그 속의 내용물이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임을 연상케 했다. 이러한 그의 빨갛게 충혈된 두 눈알은 저 멀리 보이는 불 켜진 농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 곳을 목적으로 이렇게 걷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그 농가의 불켜진 방에는 한 여인과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옆으로는 상보가 덮인 밥상이 보였는데, 그들은 아마도 가장을 기다리다 잠든 모양이었다. 남자는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와 잠든 여인과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쥔 낫을 방바닥에 내려놓더니 상보를 젖힌 후 밥을 먹기 시작했다. 기척을 느낀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더니 화들짝 놀라며 아이를 끌어안고 벌벌 떨었다. 그런데 남자는 이 모녀에겐 관심도 없다는 듯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남자는 중얼대느라 음식의 거의 전부를 입 안에 넣지 못한 채 흘려대고 있었다. 이를 본 여인은 남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인지했다. 그러자 흥분을 가라앉힌 여인이 아이를 안고 슬며시 방을 빠져나가려 들었다. 그렇게 방문에 다다른 여인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밥그릇 밖엔 안보이는 듯했던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놀란 여인이 나자빠지며 발버둥을 쳐도 남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렇게 밥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남자는 중얼거리며 낫을 쥐고 일어섰다. 순간 농가 주변의 무수히 많은 새가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날아 올랐고, 그로 인해서인지 동네의 모든 개가 짖어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자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남자는 뒷마루의 구석에 축 늘어져 채로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제의 기이한 눈빛을 더 이상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그를 동네의 누군가가 발견하고는 다가갔다. 열린 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 문 틈으로 보이는 여인의 시신... 그 누군가가 기겁을 하며 달아났다.

전종구가 잠에서 깬 것은 위의 사건 때문이었다. 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언 놈이 꼭두 새벽부터 전화질이야. 뭘일 있디야?”

잠에서 덜 깬 부인이 경찰복을 챙겨입는 전종구에게 물어왔다.

“사람이 죽었다는구마.”

“누가?”

“거 인삼키우는 조씨있지?”

“어...”

“그 사람 마누라가 죽었디야.”

여전히 잠에서 덜 깬 부인이 전종구를 올려다 보았다.

두툼한 외투를 걸친 전종구는 뒷마루로 나와 방한화를 신었다. 추운 날씨에 비까지 내려 살갓이 시려왔다. 기척을 느낀 장모가 부엌에서 나왔다.

“뭇일 있능겨? 꼭두새벽부터 출근을 허고.”

“사람이 죽었디요.”

“누가.”

“인삼 키우는 조씨 마누라가 죽었대는디 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도 아침은 먹고 가야제.”

“빨리 가봐야 되요.”

“아 한순갈만 뜨고 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제.”

“가봐야 되는디.”

“아 쯤만 먹고 가라고.”

결국 전종구는 장모의 청을 거절 못하고 아침을 먹게 되었다.

“왜 죽었다는디?”

“아직 모른대니까. 누가 죽었다고 그러는 것 같던디...”

"누가 죽었디야?"

딸아이가 들어와 밥상에 앉았다. 전종구는 또 다시 답변을 해줘야 했다.

"거 인삼키우는 조씨 아제있제?"

"어."

"그 아제 아줌마가 죽었디야."

"아이고. 안됐네. 근디 왜 죽었디야?"

그렇게 동일한 질문에 시달리던 전종구는 등교하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나서야 집을 떠날 수가 있었다. 허름한 차로 딸아이를 학교까지 바래다 준 뒤 그는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뒤늦게 향했다.

현장은 경찰들과 구경꾼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보이는 어제 밤의 살인자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자신의 물골답게 마치 죽은 자처럼 낮이 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와 친하게 지내온 경찰들은 이 끔찍한 범죄에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어찌자고 이 미친 짓을 저질렀느냐며 살인자를 나무라고 있었다.

"아니 왜 이리 늦게 와요. 사람이 둘이나 죽었구마."

전종구는 후배 직원인 오성복의 안내를 받으며 피해자들이 위치한 농가의 안을 들여다 보았다. 자루 속에 담긴 남자의 시신과 방안에 널브러진 여인의 시신이 보였다.

"아는?"

"친척 집에 데려다 났어라."

전종구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살인자를 바라보았다. 상처투성이에 지저분한 외모의 살인자는 탈진한 듯 멍한 얼굴이었다.

"왜 그랬디야?"

"술 냄새도 안 나고... 통 말을 안허네요."

일그러진 얼굴의 전종구는 살인자를 한참동안 쳐다보았다. 그러자 살인자도 전종구를 쳐다 보았다. 그렇게 눈이 마주치자 전종구는 혐오스럽다는

얼굴로 왜 그랬냐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살인자는 여전히 죽은 자의 눈빛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즈음에 서에서 출동한 형사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인계 받으며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살인자를 실은 앰블런스가 떠나가면서 현장 정리는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자 이를 지켜 보던 전종구에게 오성복이 포장된 한약재를 건넸다.

“허... 이 촌구석에서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전종구와 오성복은 한숨을 내쉬며 한약재를 뜯어 마셨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수히 많은 새땀들, 앙상한 나무들, 저 멀리 어슬렁거리는 바짝마른 유기견들..... 모든 게 음산해 보였다.

그런 그의 시야에 저 멀리서 이 곳을 바라보는 남자가 보였다. 희한하게도 원거리의 사람이라곤 그 하나뿐이었기에 시야에 들어 온 것 같았다. 너무나 멀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이 고장의 유일한 외지인인 그 일본인일 것 같았다. 왠지 그에게 신경이 쏠리는 전종구였다. 낚시 가방을 맨 듯한 그는 저 멀리서 서서 이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전경사님. 우리 저 양반 집 좀 가봐야 것는다...”

한 형사의 부탁이었다. 그러자 전종구는 형사들을 돼지 농장에 딸린 피의자의 집으로 안내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사육장에 돼지라곤 달랑 세마리뿐이었다. 나머지의 돼지는 모두 죽었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 폐사였다. 구제역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이 나왔던 것이다. 어쨌든 여인의 남편은 이곳에서 살해된 것이 분명했다. 집안에 들어서니 분명한 범행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피의자는 이곳에서 친구를 살해한 후 그의 시신을 끌고 그의 집으로 가 그의 부인마저 살해한 것이다.

피와 살점들을 보자 울렁임이 시작된 전종구는 농가를 나와 한숨을 돌렸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의 나무들은 죄다 죽어 있었고, 그 나무들마다 누군가가 알 수 없는 그림과 문자를 거칠게 새겨놓은 상태였다. 그 너머론 돼지를 묻은 흙더미가 보였고, 그 옆으로 더 이상 파묻기가 힘들었는지 그대로 유기된 돼지 사체들이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으스스해 보였고, 끔찍했다. 그렇게 불쾌한 광경에 힘들어하던 전종구를 형사들이 불렀다.

“이... 이 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 새끼여?”

피의자가 혼자 거주했다는 집 안의 방은 형편없이 지저분한 상태였다. 악취가 진동하는 방엔 온갖 오물과 죽은 짐승들이 이불 등의 집기와 어우러져 쌓여 있었는데, 마치 짐승의 등지 같아 보였다. 찢겨진 성경과 염주와 십자가 등 종교적인 물건들이 파손이 된 채 나뒹굴었고, 벽에는 흙과 피로 그리고 써댄 기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이를 본 전종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최초의 사건이었다.

哭 聲

4. 또 다른 所聞 소문

깊은 산 중. 한 지저분한 남자가 울무에 잡힌 고라니를 거두고 있었다. 이 어린 고라니는 발목에 덩이 걸리자 얼마나 바둥거렸는지 울무로 사용된 철사를 파베기처럼 칭칭 감고 있었는데, 이미 한참 전에 죽어 있는 상태였다. 철사를 푸는 남자는 배낭과 망태기를 지니고 있었다. 배낭 속엔 온갖 산짐승들이, 망태기 속엔 온갖 식물들이 가득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밀렵꾼이자 심마니인 것 같았다. 수습이 다 되자 남자는 몸을 일으키며 고라니를 어깨에 짊어졌다. 그런데 고라니의 무게가 예상 외로 무거웠던지 남자는 그만 중심을 잃으며 산비탈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크나큰 바위와 몇 번이고 충돌을 일으킨 후 의식을 잃었다.

남자가 의식을 차린 것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비 내리는 아침이었다. 덩불 속의 남자가 정신을 차린 이유는 자신의 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과 이상한 기척 때문이었다. 정신을 차린 그의 눈에 비춰진 광경은 기이하고, 또 기이했다. 한 별거벗은 남자가 네 다리로 기어 다니며 남자의 배낭에 있던 산짐승들과 어린 고라니를 뜯어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덩불 속의 남자가 새어 나오는 비명을 입을 틀어 막았다. 그러자 고라니의 내장을 파먹던 남자가 짐승 같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돌렸다. 입가에 피를 잔뜩 묻힌 그의 눈동자는 핏빛이었다.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이 육실할 노무 새끼.”

비내리는 밤. 파출소에서 전종구가 후배 직원인 오성복에게 내뱉은 말이었다. 그러자 오성복은 그 일본인이 들어오고서부터 이상해진 사람들을 거론했다. 미쳐버린 어느 가게의 주인, 급사한 어느 가문의 노인네, 그리고 돼지 농장의 주인까지 말이다. 그의 말대로 근래들어 이상한 사건과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다.

“그러서. 그 양반이 뭐라는 것이여. 귀신이라도 된다는 것이여. 이 정신빠진 놈아?”

“아니. 웃자고 헨 소린디 성을 내고 그라요. 겁나서 그라나본디.”

“버섯이라자너. 버섯. 버섯 잘 못 처먹고 환각상태서 그랬다고 검사 결과 다 나왔자너.”

“아니. 나는 그냥 그런 소문이 있길래...”

순간. 파출소 내의 전기가 끊어지며 암흑으로 돌변했다. 전종구는 본래 겁이 많았나 보다. 불이 꺼진 틈을 타 오성복이 귀신 흉내를 내며 놀리자 전종구는 겁에 질려 그러지 말라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성인이 애들 같은 놀이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며 파출소 현관 너머로 발가벗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놀란 전종구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오성복은 전종구가 본 것을 상상도 못 한채 그의 반응이 재밌는지 더 크게 놀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다시 한 번 번개가 치자 또 다시 그 여인이 보였다. 이 번엔 둘 다 그 여인을 볼 수가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을 수 밖에 없었다.

“나... 나가봐. 나가보라고.”

겁에 질린 오성복이 떠밀려 나가 보니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5. 谷城派出所 警査, 全鐘九 곡성파출소 경사, 전종구

다음 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낮잠을 자던 전종구는 악몽을 꿨는지 지랄발광을 하다 해질 무렵에야 눈을 떴다. 그의 옆에서 식사 중이던 식구들이 어이 없다는 얼굴로 잠에서 깬 그를 바라보았다. 장모와 부인과 딸아이였다. 잠에서 깬 그는 식구들의 눈초리에 민망해하다가 빨증한 얼굴로 밥상에 달려들었다. 옆에 앉은 장모가 한참동안 눈치를 주더니 돼지 농장 살인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다. 피의자의 모친이 전종구의 장모와 안면이 있었던 모양이다. 멀쩡하고 착실하던 놈이 갑자기 왜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무슨 이유인지를 물어왔다.

“웬 버섯을 잘 못 처먹어갖고 그런거라든디...”

전종구는 형사들에게서 전해 들은 얘기를 건넸다. 범인의 혈액에서 버섯 성분이 검사되었단다. 현재 범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에 시간이 흘러야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 했다.

“사람이 버섯 좀 잘 못 처먹었다고 그 짓을 허겼어?”

장모는 전종구의 말을 부정하더니 범인이 평소 다 좋았지만 도박에 빠져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도박에 큰 돈을 잃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건넸다. 이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며 장모를 띄워주던 전종구는 순간, 마당에서의 부인과 눈이 마주쳤다. 허벅지를 다 드러낸 채 이불을 빨고 있던 부인은 무서운 눈빛으로 전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뭔가를 강하게 갈구하는 눈빛이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돌리는 전종구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느껴졌다.

“보약이나 한 첩 해줘. 밤마다 시체들이 나타나자 자꾸 말을 건다.”

낡은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섹스를 마친 전종구가 건넨 말이었다. 속옷을 입으며 그럴 돈이 있으면 애 다닐 학원을 하나 더 끊어주겠다고 편잔을 주던 부인이 순간, 뭔가를 봤는지 비명을 질렀다. 서리 낀 차창 너머로 딸아이의 얼굴이 불쑥 달라붙은 것이다. 초등학생 밖에 안돼 보이는 딸아이는 덜컥 문을 열더니 난감한 질문들을 해댔다.

“시방 들어서 섹스 한 것이여?”

전종구는 바람 피다 걸린 남자마냥 뒤도 안보고 줄행랑을 쳤다.

6. 火災 事件 화재 사건

당직을 서기 위해 털털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파출소엔 아무도 없었다. 커피를 마시며 다들 어디 갔냐고 중얼대던 그의 눈에 자신의 휴대폰이 보였다. 깜박 잊고 놓고 갔던 모양이다. 열어보니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있었고, 옆 마을에서 사고가 났으니 급히 출두하라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급히 오토바이를 몰고 간 전종구가 마을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탄내가 진동을 했다. 저편에선 사람들의 소음도 들리는 듯 했다. 그가 그 내음과 소리를 향해 골목을 이리저리 쫓아가 보니 이미 진압이 된 화재 현장이 보였다. 파출소의 직원들이 총 출동한 듯 했고, 앰블런스엔 시커멓게 탄 시신들이 옮겨지고 있었다. 백발의 파출소장이 전종구를 발견하자 달려들어 어디서 뭘 하느라 연락도 안되느냐며 정강이를 걷어쳤다.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여 안주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사망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일한 생존자이고 따라서 유일한 증인일 수 있는 여인의 상태가 안 좋아 진술을 듣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여인은 시커멓게 불에 그을린 상태였는데 타 들어간 살점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듯 가족을 부르며 통곡을 하고 있었다. 들것에 실린 시신들이 나올 때에는 시신을 향해 달려들기까지 했기에 경찰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전종구는 답답하던 얼굴로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갔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어제 밤 파출소에 나타났던 여인인 듯 싶은 게 아닌가. 놀란 얼굴로 멈칫하는데 순간 흰 천에 덮여 들것에 실려나가던 시신이 팔을 뻗어 전종구의 옷깃을 잡아 끌었다. 놀란 전종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시커먼 시신인 줄 알았던 생존자가 핏빛의 두 눈을 부릅뜨며 뭐라 중얼거렸다. 겁에 질린 전종구는 소화제 사용된 물로 진창이 된 바닥을 허우적대다가 생존자의 손을 뿌리쳐 솟덩이 같은 그의 팔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생존자는 전종구를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려댔다. 그가 앰블런스에 실려간 후에도 전종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흥분이 가시질 않았다.

그런 그의 눈에 또 다시 일본인이 보였다. 그는 저 멀리 볼구경을 하는 사람들 틈에 서 있었는데, 워낙에 소문이 파다한 사람인지라 전종구의 시선을 끌기엔 충분했다. 그런데 전종구가 바라본 그 일본인은 사건의 현장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분명했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경우였다. 전종구의 시선이 일본인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었다.

현장이 정리된 후, 파출소로 돌아와 당직을 서던 전종구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진흙과 숯 검댕에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였다. 세면을 마친 오성복이 좀 씻으라고 권유를 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진정 좀 하요, 형님. 원래 화상 환자는 쇼크 땀시 계속 죽었다 살았다 그러요.”

“그 땀시 그러는게 아녀. 니도 그 여자 봤제?”

“그 주인 아줌마요?”

“어제 그 빨거벗은 여자였어.”

“야?”

“어제 그 여자였다고.”

그때 전종구의 딸이 잘 다려진 경찰복과 속옷을 들고 찾아왔다.

“그러게 왜 경찰이 돼 갖고. 간도 콩알만하믄서.”

아이는 아비에게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 투덜대면서도 기특하게 아비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의 달램에 전종구도 안정이 되는 듯 보였다. 선의로 가득한 부녀지간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 곡성은 난리가 났다.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안주인이 타 들어간 집 안의 대들보에 목을 매고 자살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어제의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몸에서 타살로 보이는 자상들이 발견되었고, 뒤늦게 화재 현장을 찾은 형사들은 흥기로 사용됐을 만한 물건들을 발견해냈다. 자살한 안주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이제 곡성파출소는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조사해야 했다. 화재로 인해 모든 세부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그녀의 동기를 알아내 조서를 완성시켜야 했다.

7. 事件 授査 사건 조사

화재사건 용의자의 주변을 조사하던 전종구는 며칠 전 정육점 주인에게 들었던 강간 사건의 주인공이 그녀라는 소문을 접했다. 섬진강에서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폭행했는데, 일행들이 이를 알고 달려들어 막아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서엔 이 기록이 없었다. 그들은 범인을 죽도록 두들겨 패주기만 했을 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여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날의 일에 대해 명확히 아는 이가 없었다. 게다가 몇몇은 그 소문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며 부정을 하는 이도 있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가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다는 얘기를 동네 할머니에게 듣게 되었다. 한 달 전 목욕탕에서 만난 그녀의 피부엔 빨갛고 물집이 가득했다는데 그로 인한 가려움증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 이후로 여자는 바깥 출입이 끊겨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가려웠다면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할머니의 의견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듣자 전종구는 벌거벗고 파출소 앞을 찾은 여자가 떠올랐다. 일리가 있었다. 그러자 그는 읍내의 피부과를 찾았다.

다행히도 여자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여자는 신경성으로 추측되는 피부병을 앓았고, 의사는 쇄골부위에서 시작된 병이 얼굴로 까지 전이돼 큰 병원을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줬단다. 병명이 머나 묻자 의사는 잘 모르겠다며 엄청난 가려움증을 동반한 신경을 따라 생기는 수포였다는 답변을 건넸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한 증상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단다. 의사의 말을 들은 전종구는 강간 사건 때문에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피부병이 악화되었다면 여자가 범죄를 저지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의사가 또 다른 얘기를 건넸다.

“그 병이 말여... 며칠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있제?”

“야.”

“그 돼지농장 주인...”

“.....”

“그 양반도 비슷한 병이 있었어.”

전종구의 기억에 담겼던 살인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뭔가에 데인 듯한 피부... 가려움증이 극도로 심했다면 자신의 피부임에도 불에 지저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병이 말이요. 버섯을 잘 못 먹어도 생길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제. 버섯이란게 워낙에 종류가 많다보니...”

전종구는 생각에 잠겼다. 현장의 버섯 샘플을 조사해 보면 되겠구나 싶었다.

"근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

"그 병을 앓는 양반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제."

"....."

"아 동네에 말여..."

8. 連鎖的 事件 연쇄적 사건

전종구가 의사에게 얻은 주소지를 찾아갔을 때, 깊은 산 속의 집엔 아무도 없었다. 들어가보니 마당엔 굵을 했었는지 부패한 고사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살점이 가득한 무구들과 어마어마한 양의 응고된 혈흔이 있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고, 굵을 벌이던 중에 발생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상기된 얼굴의 전종구는 진압봉을 든 채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상당히 흥분된 표정을 보일 수 밖엔 없었는데 돼지 농장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한 혼란스런 내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온갖 종교적 표식들과 썩어빠진 짐승의 흔적들... 이를 본 전종구는 겁이 났는 지 오성복을 호출했다.

오성복을 기다리며 집 안을 둘러보던 전종구는 마당의 혈흔들이 집 옆의 통로로 쓸려간 자국을 발견했다. 따라가보니 콘크리트 바닥이 끝나면서 시체로 짐작되는 목적인 것을 끌고가느라 패인 흙자국이 보였다. 그 흙자국을 따라가니 집 뒤의 공터가 나왔는데 트럭의 타이어 자국과 함께 그 흔적들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몇 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뒤 트럭으로 옮긴 후 사라진 것 같았다. 이 예측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의사가 알려준 박춘배라는 중년 남자일 것이라고 전종구는 생각했다.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산을 뒤로 한 음침한 공간이라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름돋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심장이 떨어져 버릴 것 같이 놀라 허둥대는 전종구에게 20대 중반의 지저분한 여자가 모습을 보였다. 여자는 낡아 빠진 운동화에 흙투성이의 원피스인지 잠옷인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로 군인의 낡은 야상을 입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다.

"아제는 귀신에 홀려서 그랬당께."

여자의 야상 왼쪽 가슴에 '박춘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누, 누구요?"

"다 죽었어. 아제가 다 죽여부렸어. 여기서 차에 싣고 갔어. 세명."

"....."

"할매가 그대로 놔두면 아제가 죽는다고 해서 곳을 한거여. 아제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디. 그래서 다 죽인거여."

"이... 이 집 식구요?"

"아니여. 나 이 집 식구 아녀."

"그. 그럼..."

"일루 와 봐."

여자가 전종구를 마당으로 안내하더니 피 묻은 무구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요것으로 다 죽여부렸어. 할매가 젤 아프게 뒤했지. 머리통이 쪼개졌거등."

"지, 직접 본 것인가?"

"그럼. 봤지."

그러면서 여자는 그날 자신이 봤다는 사건을 재현해 보였다. 끔찍한 참상이 전종구의 머릿 속에 그려져 갔다. 속이 메스꺼워 졌다.

"할매가 그러는디 그 왜놈이 귀신이라. 그 놈이 아제 피를 말려 죽이려 했디야."

"왜놈?"

"그랴. 그 다리 저는 일본놈."

"....."

"그 왜놈 본 적 있어?"

순간 까마귀 몇 마리가 곳 판위로 내려와 앉아 돼지를 뜯어 먹기 시작했다. 비위가 상했다.

"이, 있제."

"몇 번 봤는디?"

"어... 잘 모르겄네. 한 두어번 봤나."

"조심히. 그 놈이 자꾸 보이는 것은... 그 놈이 자꾸 찾아가서 보이는 것이라. 피를 말리려고..."

전종구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저 멀리 여러 대의 순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후, 산 속의 외딴 가옥은 관련자들로 시끌벅적해졌다. 파출소장은 물론이고 곡성서장에 군수까지 가세한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10 여년간 강력 범죄가 한 건도 없었던 마을에 연달아 터진 끔찍한 사건들이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그 난리 속에서 전종구는 최초 발견자이자 내역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기에 높으신 분들이 자초지종을 물어왔다. 긴장한 전종구는 옆에 서있는 파출소장을 대신해 보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두서없이 서툰 보고를 하던 와중에 전종구는 여자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다.

“야, 성복아. 여깁든 여자 워디갔냐.”
“먼 여자요?”
“야상 입은 젊은 여자 말여.”
“모르겠는디.”

신원도 모르는 유일한 목격자가 사라졌다.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이미 언급했던 여자의 존재에 대해 얼버무리며 보고를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군수와 서장은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다. 파출소장은 꺾다놓은 보릿 자루가 되었다. 이제 전종구를 필두로 한 경찰은 박춘배의 검거와 피해자들의 행방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일개 경찰인 전종구에게 사건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 앞엔 닭장차 2대가 늘어서 있었다. 수색을 위해 전경이 투입된 것이다. 지휘를 맡은 전종구는 어설프지만 열심이었다. 100 명에 달하는 인력을 동원해 박춘배의 집 주변을 수색했다.

“니 지금 그 꼬챙이 들고 머하냐?”

그렇게 열심이던 전종구에게 뒤늦게 백발의 파출소장이 다가와 물었다.

“여 사람이 몇인디 너까지 와서 꼬챙이질을 허고 그랴.”

“아, 그러도 지가 발견한 사건인디...”

“니는 화재사건을 마무리 져야지, 이 놈아. 직원도 몇 명 없구마. 얼른 가 마무리 져. 여는 내가 맡을텐께.”

“아니 군수님께서 직접 지헌티...”

“군수는 니미... 그래서. 나 제끼고 군수헌티 붙겠다 이거여?”

교활한 늑은이의 권력을 향한 암투처럼 느껴졌다. 전종구는 하는 수없이 파출소로 돌아가야 했다.

“씨벌... 군수까지 찾아온 사건을... 지가 가로채고 말여. 머리는 하얘가지고...”

오성복이 운전하는 순찰차 안에서 전종구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다.

“넌 뭐 알아낸 거 있어?”

“뭣을요?”

“그 여자말여. 조선녀. 왜 그랬는지 알아낸 거 있느냐고.”

“아... 그 아줌마 원래 정신이 오락가락 했다네. 특허문 빨게벗고 나뎡기고.”

“그건 또 먼소리여.”

“아 그때도 비까지 맞음서 훌쩍 벗고 사무실에 왔었잔요. 자주 그랬디요.”

“그러?”

“야.”

전종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멀쩡하던 여자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이 먼 상관이었소. 정신이 나갈 만 했으니 나간 것이겠지.”

“강간... 버섯... 피부병...”

용의자가 미쳐간 원인을 중얼거리던 전종구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저 멀리 숲 속에 위치한 허연 뿔이었다. 자세히 보니 발가벗은 사람이었다. 놀란 전종구의 눈이 커지는데 때마침 적신호를 받은 순찰차가 멈춰섰다. 그래 더욱 들여다 보니 커다란 짐승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라 입이 벌어지는 전종구였다. 그러자 그 남자가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쳐들고 전종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네발을 이용해 무서운 속도로 순찰차를 향해 다가왔다. 그런데 그 숲은 아래의 골짜기를 지나야 도로에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남자의 모습이 골짜기 속으로 사라졌다. 겁에 질린 전종구가 어찌할 줄 몰라하며 사방을 두리번 거리는데 백미러로 저 뒤편에서 달려드는 남자가 보였다. 돌아보니

코앞까지 다다른 남자는 두 눈알이 시뻘건 일본인이었다. 그 일본인이 차창을 박살내며 전종구에게 달려들었다.

9. 六足猫 여섯 다리의 고양이

다음 날 아침. 위와 같은 악몽을 꾸다 지랄 발광을 하며 깨어난 전종구는 주전자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먼 놈의 죄를 지었길래 그딴 꿈을 꾸는겨. 계속. 바람피냐?”

부인이 들어와 외투를 벗어 걸며 건넌 말이었다.

“지랄하고 앉았네... 워디 갔다 오는겨. 아침부터.”

“약국. 아가 아파서 학교도 못 갔네.”

잠에서 깬 전종구가 아이의 방으로 가보니 한기가 느껴졌다. 부인이 말하길 아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자느라 그랬단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가를 종얼거리기까지 하는 게 증세가 심각해 보였다. 이를 본 전종구가 부인을 책망했다.

“아니, 아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애미가 뭘 현겨?!”

그러자 갑자기 천장에서 웬 짐승의 소리가 들려 왔다. 전종구의 고함소리에 놈이 놀랐던 모양이다. 놈은 천장을 뛰어다니며 기분 나쁜 울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전종구는 함께 천장을 보고 있던 부인을 바라보았다.

“뭐여? 갱이 소리는 아니고... 쪽제빈가?”

부인의 무감각한 반응이었다. 시골 야박네다웠다. 이후 전종구는 아궁이에 땀감을 잔뜩 넣어 놓고는 파출소장에게로 향했다.

파출소장은 산 속의 수색 현장에 있었다. 전종구가 보고서를 들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군수와 서장과 함께 모닥불에 둘러 앉아 짹짹거리며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다.

"자네 그렇게 겁이 많다메?"

서장이 건넌 말이었다. 소장은 그들에게 자신의 험담까지 한 모양이었다. 전종구는 배알이 풀렸지만 누르고 참으며 보고서를 보았다.

"이 사람아. 이게 뭐여. 애들이 글짓기헌 것도 아니고..."

잔인한 늑은이었다. 그는 귀빈들 앞에서 지적질을 계속 해댔다. 전종구의 얼굴이 벌게졌다. 그런 그가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즈음 산 저편에서 전경들의 웅성임이 들려오더니, 곧이어 시체를 발견했다는 무전이 터졌다. 모두가 산 저편을 향해 내달렸다.

3 구의 시체들은 박춘배를 제외한 자들로 무당과 그 밑의 법사와 박춘배의 부인이었다. 그들은 살해 당시 그대로의 복장이었는데 유기된 지 오래된 상태라 부패되었고 짐승에게 훼손돼 있었다. 절벽 바로 밑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박춘배는 그들을 저 위에서 떨어뜨린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전종구는 절벽 위를 올라다 보았다. 등산객으로 보이는 남녀 3 명이 숨을 헐떡이며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가.

"거 아저씨 뭐해?! 찍지마! 찍지 말라고!"

여전히 성질이 난 상태였던 전종구가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자 그 옆의 두 등산객이 머라 했고 그제야 남자는 카메라를 내렸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카메라가 내려지자 전종구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절벽 위의 남자는 그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그러고보니 그만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는 등산을 목적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멍한 얼굴의 전종구가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자 그는 곧 절벽 너머로 사라졌다.

"그 놈이 자꾸 보이는 것은... 그 놈이 자꾸 찾아가서 보이는 것이라. 피를 말리려고..."

그 정신나간 여자의 말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파출소엔 이제 막 인쇄된 박춘배의 수배 전단지가 도착했다. TV에선 곡성의 연이은 살인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이거 동네에 곳이라도 혀야 되는 거 아냐?”

전종구를 옮기던 오성복의 말이었다. 그의 시선에 시무룩하게 앉아 고민하는 전종구가 보였다.

“아 왜 또 그러고 앉았대요. 또 시체 봤다고 그러는거?”

“아냐. 이 씨별농아.”

“아님 말지. 왜 욕을 하고 그랴.”

“야 성복아.”

“야.”

“자꾸 그 일본 사람이 보인다.”

“야?”

“사건 현장에 자꾸 나타나. 그 양반이.”

“먼소리여. 낸 한번도 못 봤는디.”

“니 말여. 일전에 그 양반 얘기 했었제?”

“먼 얘기.”

“거 산에서 빨가벗고 고라니 뜯어먹었던 얘기말여.”

“.....”

“기억 안나?”

“아, 형님... 시방 머허는 거요? 이 난리 중에?”

“그 얘기 누구헌티 들었어?”

“.....”

“아, 누구헌티 들었냐고?”

잠시 후. 전종구와 오성복은 읍내의 허름한 건강원을 찾았다.

“믿기지 않겠지만 직접 내 두 눈으로 본 것이여.”

“술 먹고 헛 것을 본 거 아니요?”

전종구가 의심하자 주인은 냉동고를 열어 내부를 보였다.

“봐봐. 텅 비었제? 낸 그날 이후로 산은 근처에도 안 가. 가게도 내놔다니께. 그라서.”

전종구가 한숨을 내쉬더니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그 양반 집이 어디요?”

“왜 가볼라고?”

“야. 함 만나봐야 쓰겠네.”

“가지 말어. 그러다 큰일나. 내 생각엔 말여. 이 동네서 자꾸 사람 죽어나가는거. 그거 그 사람이랑 뭘 연관이 있는겨.”

“.....”

“그 양반 사람아니여.”

전종구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라도 주소 좀 불러줘 봐요.”

“산 속에 주소를 워찌 알어.”

“대충 어디 쯤인디요?”

“말로 설명이 안 되제. 완전 골짜기 속인디.”

주인의 말을 듣고나니 그 일본인에 대한 생각이 더욱 커지는 전종구였다. 돌아가는 길에 오성복이 말했다.

“형님 좀 쉬셔야 겠소.”

“왜.”

“형님이... 진짜로 저 얘길 믿는거문... 나 형님이랑 안 놀라요.”

전종구는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한 전종구는 바로 딸아이의 방에 들렀다. 아이는 열이 심했다. 방안의 한기 역시 여전했는데 둘러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전종구는 창문을 닫고 아이의 곁에 앉았다. 그런데 또 다시 천장에서 짐승의 기척이 들려왔다. 매우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천장을 굽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후레쉬를 들고 사다리를 기어올랐다. 뭔가가 후다닥 뛰며 기둥 뒤로 숨더니 으르렁거렸다. 후레쉬를 비춰보니 털이라곤 하나도 없는 처음 본 짐승이었다. 놀란 전종구가 흠칫하더니 작대기를 들이댔다. 그러자 그 짐승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TV를 보고 있던 부인과 장모는 오밤 중에 울려 퍼진 전종구의 비명 소리에 놀라 뛰쳐 나갔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전종구가 고양이만한 크기의 짐승을 후레쉬로 때려 죽이는 모습이 보였다. 다가가보니 다리가 6 개가 달린 희한한

형상의 털없는 짐승이 죽어있었다. 난생 처음 본 매우 희한한 짐승이었다. 놈이 할퀴었는지 전종구의 얼굴엔 상처가 있었고 거기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어?”

“어머나. 이것이 머다냐.”

“재수없게 시리... 기름 갖고 와.”

숨을 헐떡이던 전종구가 흥분한 얼굴로 죽은 짐승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다리가 여섯개 달린 기이한 짐승이 타들어갔다. 그렇게 타들어가는 짐승을 보며 장모가 울조렸다.

“당장에 무당 불러야 쓰겠다... 동네에 사람잡는 귀신이 올 집에 들왔는갑다.”

전종구의 굳은 얼굴이 불빛에 일렁였다.

10. 超自然的 現像 초자연적 현상

“아니 얼굴이 왜 그러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오성복이 전종구의 상처를 보고 물었다.

“암 것도 아녀.”

“또 형수한테 맞은겨?”

“지랄헌다. 어여 차나 빼. 어디 좀 가보게.”

전종구는 오성복을 데리고 또 다시 건강원을 찾았다.

“아 형님 왜 그라요. 저 양반 겁나게 입 썩 양반인디 소문남 워쩨라고.”

“조용허. 닌 보고만 있어.”

들어가니 건강원 주인은 아들을 데리고 일을 보고 있었다.

“아침부터 또 웬일이래?”

“가게 내놨다두만...”

“아. 누가 이것 좀 다려달라 그래서...”

“조덕기씨. 당신을 헌법 00 조에 의거하여 야생동물 밀렵 및 포획, 그것의 밀거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난데없는 소리와 함께 수갑을 채우자 난리가 났다. 아들은 울부짖고 주인은 강렬히 저항했다. 그럼에도 전종구와 오성복은 그를 순찰차에 태우는데 성공했다.

“아제. 결정하쇼. 유치장 좀 들어갔다가 벌금내고 면허정지 당할라요. 그 일본 양반 집까지 안내하고 집에 들어가 싶어요.”

주인이 담배를 물고 쏘아보더니 말했다.

“집에 가서... 쉬어야제.”

그렇게 해서 전종구와 오성복은 일본인의 집이 있다는 산으로 향할 수가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따라서 매우 우중충하고 어두운 날이었다. 계다가 산 속으로 들어가니 한낮임에도 더욱 어두워져 마치 밤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안내하던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걸음을 머뭇거렸다.

“저기여. 저가 거기여.”

“저기 집이 어딴다고.”

“아니. 그 사람 봤던 데라고. 저, 저봐. 저깁잔여.”

저편으로 살점이 뜯긴 채 부패한 고라니의 사체와 배낭, 그리고 그곳에서 꺼낸 산짐승들의 사체가 있었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전종구와 오성복의 얼굴이 놀라움과 공포심에 일그러졌다.

“그 말이 진짜였소?”

“아 내가 진짜라 그랬잔여!”

“이런 씨부럴...”

순간, 빗줄기가 거세지며 천등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건강원 주인은 두려움을 느꼈는지 저 산을 넘으면 그 일본인의 집이 나오니 자기는 돌아가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무서워 내댤진 거짓말일 수 있었다. 전종구는 그를 붙잡았고 주인은 굴하지 않았다. 그렇게 붙잡고 뿌리치고를 반복하다가 주인이 진흙에 미끄러지며 몇 바퀴를 굴렀다.

“괜찮아요?”

주인은 돌멩이에 부딪혔는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개같은 놈들.”

“미안해요.”

“절루 가, 이 개새끼야!”

“.....”

“니들 두고 봐! 죄다 모가지 찢아버릴텐께.”

화가 난 주인은 왔던 길로 향했다. 그러자 그 순간 천등 소리가 울리며 번쩍하고 번개가 쳤다.

전종구와 오성복은 냇이 나갔다. 어이없게도 그 번개가 건강원 주인의 머리에 떨어진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숯덩이가 되어 비틀거리더니 마치 좀비처럼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전종구와 장성복은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그를 업고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착한 읍내의 한 병원. 비를 흠뻑 맞은 흉투성이 전종구의 눈에 생사를 오가는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첫번째 사건의 살인자마냥 어딘가는 검고 어딘가는 빨건 곰찍한 피부의 주인은 온갖 주사를 꽂은 채로 산소 호흡기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옆으론 건강원에서 봤던 아들이 있었다. 그는 전종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전종구였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끝 방의 문이 열리며 경찰이 뛰쳐나와 간호사를 불러댔다.

전종구가 다가가보니 열린 문 틈으로 돼지 농장 사건의 살인자가 보였다. 산소호흡기를 쓴 그는 온 몸이 비틀어져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시빨건 눈으로 전종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전종구는 어쩔 줄 몰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순간 살인자가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온몸을 꺾어대기 시작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련이었나 보다. 살인자의 얼굴이 고통에 일그러졌다. 전종구가

다가가 살인자의 몸을 붙잡았다. 그러자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그의 허리가 꺾이더니 '우두둑'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산소 호흡기 속으로 터져나온 핏덩이가 고이더니 이내 흘러내렸다. 이를 본 전종구와 오성복의 얼굴이 파랗게 변해져 갔다.

병원을 나선 전종구와 오성복은 심난한 마음에 소주를 한 잔 했다. 시골벽적인 술집이었는데 둘은 한참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흥국이 놈 허리 꺾이는 것 봤냐?"

오성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도대체... 머가 워떻게 돌아가는 거냐?"

오성복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들이켰다. 그의 시선은 선반 위의 고양이에 꽂혀 있었다. '마네키네코'라는 일본 소품이었다.

"저... 형님..."

"와."

"저 께이 말여."

전종구가 오성복의 시선을 따라 고양이를 봤다.

"저거... 박춘배네 집에 있던 것이여."

환장할 노릇이었다. 전종구가 침을 삼키더니 술집의 여주인을 바라 보았다. 전형적인 시골 작부였다. 알록달록한 가디건을 입은 그녀가 저 옆의 테이블에 앉아 술 취해 웃고 있었다. 목덜미를 긁적이면서 말이다. 그녀의 옷가지 사이로 빨갭게 부어오른 살갓이 보였다.

잠시 후. 오성복과 헤어진 전종구는 골목길을 가로 질러 집으로 향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골목길이었다. 그의 앞으로 웬 고양이 한마리가 지나쳐 갔다. 놀란 그가 멈춰서자 무언가가 자신을 훑쳐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오싹함을 느낀 그가 다시 이동을 하려 하는데, 찬바람이 훑하니 불더니 저 편 골목에서 빈 깡통 하나가 굴러 내려왔다. 보니 그 곳엔 어떤 이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나와 있었다. 그 곳을 피해

돌아가려던 전종구는 피식 웃더니 다시 가던 방향으로 향했다. 그러자 서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주저앉기 시작했다. 이를 본 전종구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 들고 빠르게 골목 안을 들여다 보았다.

막다른 골목엔 아무도 없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가려는데, 바닥엔 주저앉은 이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이상한 느낌에 그 근원을 향해 돌아보니 중력을 무시한 채 담벼락에 네 발로 붙어 앉은 일본인이 보였다. 소문에서처럼 발가벗은 모습으로 두 눈이 붉은 색이었다. 이를 본 전종구는 놀라 굳어버렸고, 순간 일본인이 무섭게 달려들었다.

비명을 지르며 한밤 중에 깨어난 전종구는 혼자 쌍욕을 해대다가 딸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흐느낌인 것 같았다.

딸아이의 방문은 잠겨있었다. 이름을 불러도 흐느낌만 들려올 뿐이었다. 완력으로 방문을 열어젖힌 전종구가 들어가보니, 딸아이가 가위에 눌린 것 마냥 부들부들 떨며 울고 있었다. 전종구는 아이를 안고서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는 가위가 풀렸는지 숨을 토해냈다. 전종구가 진정을 시키자 아이는 너무나 무섭다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꾸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전종구는 악몽을 꾸 딸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지켜줘야 했다.

그들의 이러한 대화는 장모의 귀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불꺼진 킁킁한 방 안에서 무서운 얼굴의 장모가 귀를 쫓긋 세우고 있었다.

11. 山中의 祭壇 산 속의 제단

다음 날 아침, 전종구는 아이의 방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없었다. 숙취 때문인지 꿈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안방으로 가보니 아이는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 아침을 먹고 있었다.

“뭐여. 다 나왔네?”

“안녕. 아버지.”

그렇게 인사하며 아이는 생선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밥상을 보니 먹어치운 조기의 뼈다귀가 4 마리는 되어 보였다.

“아니. 아가 생선을 다 먹고...”

부인과 장모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전종구를 바라봤다. 모두가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가 아무래도 이상혀. 자 방에서 나온 그 요상헌 짐승도 그렇고.”

전종구를 불러낸 장모가 조용히 건넌 말이었다.

“이따 용허다는 도사가 집에 들르기로 헐어. 알고 있으라고.”

“.....”

“왜 대답을 안 혀.”

“알았시유.”

장모의 처신이 못마땅한 것인지 전종구는 마지 못해 대답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가 국도변의 휴게소로 가니 오성복이 젊은 남자와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혀. 형님 우리 조카요.”

인사하는 조카의 점퍼 사이로 로만 칼라가 보였다.

“뭐여. 신부님이여?”

“아직 신부는 아니고 부제여. 부제. 사제 밑에... 생각해 본께 그 양반을 만나도 말이 안 통할까봐서...”

“일본말 좀 혀?”

“야. 쯔 혀요.”

“야가 어려서 일본에 잠깐 살았거든.”

“근디 니 목에 그건 뭐냐?”

오성복이 목에 걸린 십자가를 감추려 들었다.

“가지가지 현다. 가자.”

그들은 또 다시 일본인의 집으로 향했다.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오성복이 전종구에게 사진을 건넸다. 보니 박춘배 사건의 현장 사진을 인화한 것이었다. 방

구석으로 어제 술집에서 보았던 마네키네코가 보였다. 목덜미를 긁적이던 작부가 떠올랐다.

“가보든 답이 나오겠지...”

굳은 인상의 전종구가 한 말이었다.

일본인의 집은 건강원 주인의 말대로 어제의 그 산 너머에 있었다. 녹이 슬다 못해 차체가 썩어버린 경운기와 한쪽 눈이 없는 거대하고 시커먼 개가 음산한 분위기의 농가를 지키고 있었다. 집 주변으로 돌덩어들을 쌓아 올린 탑들이 보였고, 낡은 우물 옆으로 한자가 가득 적힌 나무 비석과 제단이 보였다. 누가 보아도 일반적인 집은 아니었다.

“씨벌... 이것이 다 뭇이다냐...”

농가로 향하는 그들에게 개가 짖어댔다. 까마귀 몇 마리가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계시오?”

주인을 여러 차례 불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전종구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첫번째 방을 들어가보니 침실로 사용 중인 것 같았다. 이부자리 앞으로 식사를 마친 밥상이 보였고, 그 옆으론 몇 개의 박스와 서적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별 게 없었다.

“니는 여기 좀 더 뒤져봐.”

그렇게 오성복에게 지시를 내린 전종구는 옆 방으로 향했다. 줄에 묶인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댔다. 그 개소리 사이로 조카의 항변이 들려왔다.

“삼촌 이거 불법이여.”

“불법은 니미. 니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 불법 침입 아녀.”

“나가 있어. 콧.”

옆 방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문틈으로 들여다 보니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 놓은 것이 보였다. 그러자 전종구는 그 자물쇠를 따려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자신을 노려보는 조카가 보였다.

“니는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사람 뺨뚱하게. 저 뒤에 가 있어.”

조카가 저편으로 향하자 전종구는 꼬챙이를 이용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한편. 방 안을 뒤지던 오성복은 벽에 걸린 옷가지들 사이로 또 다른 문을 발견했다. 다락문이었다. 옷가지들을 젖히니 번호식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오성복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튼을 눌러봤다. 잠금을 걸어놓지 않았는지 운 좋게도 잠금이 풀렸다.

그렇게 전종구와 오성복은 각자의 자물쇠를 동시에 열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았다.

“씨벌...”

전종구와 오성복이 동시에 각 방에서 내뱉은 말이었다.

먼저 전종구가 본 것을 말하자면, 그가 연 방은 일종의 예배당이였다. 제단의 위론 노인 남녀의 오래된 사진이 하나씩 걸려 있었는데 음침한 것이 사망한 이후의 얼굴 같았다. 가운데의 부처 상 밑으로 향이 타 들어가고 있었고, 여러 개의 양초들도 타고 있었다. 제단의 가운데엔 커다란 생선이 놓여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 방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썩어 문드러져 뼈를 드러낸 생선이었고, 그 위론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제단의 앞으론 크고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문자였다. 그 밑으로 방바닥엔 굳어버린 핏자국들과 무수히 많은 깃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새끼줄들이 온 방안에 복잡하게 널려있었고, 그 사이마다 부적 비슷한 것들이 꽃혀 있었다. 이질적인 광경이었다.

두번째로 오성복이 본 것을 말하자면, 다락 속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었다. 어떻게 찍었는지 범죄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시체의 사진들과 산 사람의 사진들이 뺨뺨했다. 대부분이 숨어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는데, 개중엔 곡성에서 촬영된 사진들도 많았다. 사진들의 구성은 생전의 사진 옆으로 죽어

시체가 된 후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격이었다. 개중엔 둘 중 하나가 없는 사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러했다. 이러한 사진들을 2개의 촛불이 비추고 있었고 그것의 가운데에는 잡다한 소품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섬찝한 광경이었다.

그렇게 전종구와 오성복의 얼굴이 일시에 일그러지자 조카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속해서 짖고 날뛰던 개의 쇠사슬이 끊긴 것이다.

전종구가 달려나가자 조카는 개에게 깔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놀란 그가 몽둥이로 개를 후려치며 조카를 빼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데 문이라봤자 나무 창살에 창호지였으니 거대한 개를 막아내기엔 무용지물이었다. 문을 뚫고 들어오려는 개를 전종구는 밥상과 이불 등을 이용해 막아내야 했다.

“성복이 너 뭐허!”

이러한 와중에도 오성복은 멍하니 서서 다락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전종구가 뭐라하자 그제서야 달려들어 전종구를 돕는 그였다. 그런데 갑자기 미쳐 날뛰던 개가 잠잠해 졌다. 숨을 죽이고 들어보니 일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기도 했지만, 난감하기가 더 했다. 뚫어진 문틈으로 보니 개의 목줄을 잡고 방 안을 노려보는 일본인이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의 일본인이 방으로 들어서자 전종구와 오성복은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무단 가택 침입을 해서였을 수도 있었고, 소문 속의 일본인을 처음으로 대면해서 었을 수도 있었으며, 방금 전에 확인한 내용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떨고있던 그들 앞으로 일본인이 지나쳐 갔다. 그는 피 흘리는 조카를 내려다보더니 뒤집어진 사물들을 지나 문이 열린 다락을 보았다. 오성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다락 속의 광경은 일본인의 치명적 비밀일 것이었다. 그것을 타인에게, 그것도 경찰에게 들켰다면 일본인은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다락을 보며 잠시 생각을 하던 일본인은 아무런 반응없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무표정했기에 화가 난 것인지 뭔지 알 길이 없었다. 마치 그들의 머릿 속을 들여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일본인은 미치도록 긴 시간을 말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마른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 새끼... 그 새끼가 범인이여...”

거세게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차 속의 오성복이 떨리는 음성으로 떠들어댔다.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야. 그것이 말이나 되냐?”

“한 두 명이 아녀...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어... 나란히... 조선녀... 조선녀 식구들... 흥국이까정... 다 있었어.”

같은 시각. 일본인의 집 안 다락 속엔 그 많던 사진들이 흔적도 없이 뜯겨져 있었다. 일본인은 부엌에 앉아 사진들을 아궁이에 넣고 태우는 중이었다. 한장 한장 사진을 불 속에 던져 넣는 일본인의 얼굴이 불빛에 일렁이고 있었다.

“산 사람일 적에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람이 미쳐 죽게 만든 담에... 찾아가 또 사진을 찍은겨.”

“.....”

“그 새끼가 범인이여...”

운전 중인 전종구가 룸미러로 조카를 봤다. 조카는 이들의 이야기에 심취해 개에 물린 고통을 잊은 듯 보였다.

“이제 고만허라.”

“확실히... 그 새끼... 무시무시한 새끼여.”

“고만허라고. 나중에 허자. 나중에.”

“그 새끼... 산 사람 물건을 가져가다... 주문을 걸었어. 귀신헌티...”

전종구가 자신이 본 제단을 떠올렸다.

“뭘 또 본 게 있는겨?”

“이...”

“뭘 봤는디.”

“.....”

“아 뭘 봤는디.”

오성복이 운전 중인 전종구를 쳐다봤다.

“왜... 아 왜 그러.”

전종구를 보던 오성복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야 성복아. 이 새끼야.”

“형님... 우리 효진이... 효진이 워쩌냐...”

효진은 전종구의 딸아이였다. 자식의 이름을 듣자 흥분한 전종구가 무슨 일인지 강하게 추궁했다. 그러자 오성복이 품 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조그만한 실내화 한짝이었다. 하얀 실내화의 안편에 ‘전효진’이라 적힌 글자가 보였다.

“이게 뭣이여.”

“그 안에 가 사진도 있었어... 효진이 사진이... 거 있었다고...”

그 시각. 일본인이 아이의 사진을 볼 속에 던졌다. 불 붙은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12. 全孝珍 전효진

일행들과 헤어진 전종구는 차 속에서 갈등했다.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딸아이에게 생긴 일들과 근래의 사건들과 이상한 짐승 등 여러 생각들이 혼란을 배가시켰다. 그런 복잡한 두려움들이 그를 집 앞에 도착해서도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온 전종구는 차분하려 애쓰는 얼굴로 아이를 찾았다. 방에 없던 아이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가...”

비에 흠뻑 젖은 물골로 자신의 옆에 앉는 아비를 보고 아이가 놀란 얼굴을 지었다. 전종구가 그런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왜 그러. 무섭게. 괜찮어?”

“그럼. 괜찮지...”

“옷 좀 갈아입지 그러.”

“아가...”

"왜."

"니 혹시... 실내화 잃어버린 적 있냐?"

"아니."

"뭐라 그럴라고 그런 거 아닝께 애길혀 봐."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전종구는 그 실내화 한 짝을 보였다.

"그럼 이걸 뭐여?"

아이는 슬쩍 보더니 답했다.

"내꺼 아니다."

"이거 니 글씨 아냐?"

아이는 다시 실내화 속에 쓰여진 자신의 이름을 봤다.

"내꺼 아니라고."

전종구는 시치미를 떼는 아이를 한참동안 쳐다보더니 다시 물었다.

"니... 동네에 일본 아제 사는 거 알제?"

"아 물을 똑똑 흘림서 시방 뭐하는겨."

영문을 모르는 부인이 들어와 끼어들었다.

"대답혀봐. 니 그 사람 알제?"

아이가 고덕였다.

"니 그 아제 만난 적 있제?"

"....."

"대답혀라고."

"아 애 무섭게 왜 그려?"

"나가있어."

"....."

"내 쪼께 심각허니께 나가있으라고."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낀 부인이 나가자 전종구는 다시 질문을 건넸다.

"아부지 경찰인거 알제? 아부진 거짓말허믄 다 알아."

아이의 표정이 굳어갔다.

"니 그 아제 만난 적 있제?"

굳은 얼굴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허 봐."

"뫼을."

"죄다. 어서 만났고. 뫼 헛는지."

"나가 왜 말허야 되는디?"

"중요헌 문제니께."

"뫼이 중요헌디."

"니 정말 이럴꺼?"

"뫼이 중요허냐고."

"....."

"도대체 뫼이 중요허냐고. 뫼이 그렇게 중요허. 뫼이! 그렇게 중요허냐고!"

전종구는 놀란 얼굴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알던 딸아이가 아니었다.

"뫼이 중요헌 지도 모름서... 뫼 자꾸 캐묻고 지랄이여 지랄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이는 안방을 나갔다. 전종구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다. 녀이 나간 그의 눈이 문밖에서 듣고있던 부인의 눈과 마주쳤다.

"아가 갑자기 이리 뻘는데 이것이 사춘기라고?! 그것이 말이 디여?!"

차 안의 전종구가 부인에게 뻘은 말이었다.

"말이 안 되믄! 그럼 사춘기가 갑자기 오지. 기어 오냐?"

"쥬뻘도 모름 조용허고 있으라고!"

"나가 뫼 모르는디! 쥬뻘도 모르는건 당신이여!"

답답하던 얼굴의 전종구가 한숨을 내쉬며 혼란스러워 했다.

“아가 지난 주에 거시길 시작했어.”

“뭘 거시기.”

“생리했다고. 지난 주에.”

“.....”

“사춘기라고.”

그 말을 들은 전종구가 고민에 잠겼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자 전종구는 조용히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잠들어있었다. 그는 후레시 불빛에 의지해 아이의 책상을 뒤지더니 공책들을 꺼내 펼쳐보았다. 초반엔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던 것이 뒷장으로 갈수록 끔찍한 낙서들로 가득해져 갔다. ‘걸레같은 년’, ‘살인’, ‘오입’, ‘낙태’ 등 초등학생이 쓴 글이라곤 믿겨지지 않는 글들과 시꺼멓게 그려진 기괴한 그림들이었다. 충격적이었다. 그러자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잠옷을 들추며 피부를 확인하려 들었다. 양다리엔 이상이 없었다. 그는 잠옷을 더 들춰고 그러자 배꼽 위로 시뻘건 부위가 발견되었다. 물집들이 가득했다. 전종구의 숨결이 거칠어지며 손 끝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시방 머허는겨?”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다.

“어? 자, 자는 줄 알았두만...”

“시방 머허는 것이냐고.”

전종구는 할 말이 없었다.

“오밤 중에 딸래미 치마를 걷어 올리고 머허는 짓이냐고.”

“.....”

“왜 말을 안허?”

“.....”

“왜 말을 안 허냐고!”

너무나 무서운 아이의 얼굴이었다. 겁에 질린 전종구는 아무 말도 못했고, 아이의 찢어질 것 같은 고함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결국 이러한 난리로 인해 부인과 장모가 뛰쳐 나왔다. 잠자던 자신의 치마를 걷어올렸던 딸아이의 진술은 전종구가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니 시방 제 정신이여?”

“그것이 아니라고.”

“이 미친 놈아!”

흥분한 부인이 전종구에게 달려들고 장모가 이를 말리며 집 안이 난장판이 되어갔다. 그러자 딸아이는 급작스레 흥분을 가라 앉히며 흥미롭다는 얼굴로 어른들의 싸움을 관찰했다. 이러한 아이의 모습은 정신없이 부인을 뜯어 말리던 전종구의 눈에도 포착되었다. 그가 항변과 저항을 멈추며 아이를 쳐다보자 아이는 불쾌하다는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전종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현재의 아이는 그가 알고 있던 피붙이가 아니었다.

“아까 도사가 다녀갔어.”

난리가 진정되고 난 후 멍한 얼굴로 뒷마루에 앉은 전종구에게 장모가 건넨 말이었다.

“집 안에 귀신이 들었디야. 동네 돌아다니던 귀신이 울 집안에 들어왔는디. 아무려도 효진이헌티 들어온 것 같디야.”

“.....”

“아까 효진이 얼굴. 내도 봤네.”

“.....”

“외지서 기어들어온 귀신인디 보통 내기가 아니라. 놔뒀다간 효진이부터 우리 식구들 줄줄이 송장될 꺼라고... 그래서 워쩌면 되냐 했더니 그런 걸 허는 곳이 있다믄서 자기가 잘 해주겠디야. 대신에 빨리.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여. 효진이 몸 상하기 전에.”

“.....”

“칠백 달라고 허는걸 애써서 삼백으로 깎았어. 시간 없다니께 얼른 결정허.”

“.....”

“이?”

“야. 생각해 볼게요.”

대답을 들은 장모가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장모님. 그 도사가 말요.”

“이.”

“그 귀신이 누구라 안 혀요?”

“말했지.”

“누구래요?”

“겁나게 원통하게 죽은 늙은 남자라.”

장모가 들어가고, 여전히 뒷마루에 앉은 전종구는 일본인을 떠올렸다. 그간 그와 마주쳤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의 집에서 본 제단과 돌제단, 아궁이 속 숯덩이들이 떠올랐다. 그러자 겁에 질려 떠들어대던 오성복이 떠올랐다.

“그 안에 가 사진도 있었어... 효진이 사진이... 거 있었다고...”

그러자 전종구는 오성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을 자는 것인지 피하는 것인지 받지 않았다. 그러자 전종구는 썩한 얼굴로 성당을 찾아갔다. 어제 만났던 오성복의 조카가 6시를 알리는 종을 치고 있었다.

“니 나랑 어제 거기 좀 가봐야 쓰겠다.”

13. 日本人 일본인

전종구와 조카는 또 다시 일본인의 집으로 향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치지 않았다. 빗 속의 산길을 지나는데 뭔가의 기척이 들려오며 그것의 시선이 느껴졌다. 전종구는 두려웠으나 딸아이를 위해 필히 가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공포를 이겨내고 일본인의 집에 다다르자 외눈박이 개가 짖어대고 있었다. 돌탑들 앞으로 방금 전에 무슨 제사를 지냈는지 향이 타고 있었고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조카가 일본어로 사람을 부르자 밥을 먹고 있던 일본인이 문을 열었다. 전종구가 음식을 씹고 있는 그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전종구는 일본인의 여권을 확인하며 그 내용을 수첩에 적고 있었다.

“집 안을 좀 봐야 쓰겠다고 혀.”

조카가 통역을 하자 일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전종구는 방으로 들어갔다. 밥상 위의 닭발 조림이 눈에 띄었다. 발톱까지 그대로인 허연 조림이었다. 속이 미식거렸으나 그는 시선을 돌려 오성복이 보았다는 다락을 확인했다. 쫓대와 소품들을 제외하곤 아무 것도 없었으나 무언가를 떼어낸 흔적은 분명했다. 전종구가 일본인을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깃던 것들 어따 치웠는지 물어봐.”

조카가 묻자 일본인이 짧게 대답했다.

“뭘을 말허냐는 디요?”

“우리가 어제 보고 간 것이라고 말허.”

사제가 전하자 일본인이 되물었다.

“혹시 사진을 말허는 것이냐고 묻는디요?”

“그려. 사진허고... 댜 것들.”

“다 태웠다는 디요.”

전종구가 일본인을 노려보았다.

“워디다.”

“부엌이라는디.”

부엌엘 가보니 아궁이 속으로 잿더미들이 가득했다. 시커멓게 탄 숯덩이와 재 뿐이었다.

“여긴 뭇하러 왔어.”

조카가 통역을 했음에도 일본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다시 물어봐.”

사제가 또 다시 묻자 일본인이 입을 열었다.

“기냥 여행 온 것이라는디유.”

“끌고 가 처넣기 전에 똑바로 말하라고 혀.”

조카의 통역을 들은 일본인이 전종구를 뺨히 쳐다보았다. 갈등을 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던 그가 입을 열었다.

“마, 말해도 안 믿을 거라는디요.”

“어여 말허라 그려. 다 알고 왔다고.”

그러자 조금 더 갈등을 하던 일본인이 대답했다. 조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행... 왔디요.”

동일한 대답을 들은 전종구가 한숨을 내쉬며 감정을 추스렸다.

“여행을 왔다고?”

“야.”

“너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통역허야 험다.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야.”

“야이 씨벌놈아.”

“.....”

“이 개 좃겉은 씹어 죽일 새끼야.”

“경사님...”

“여행을 왔단 새끼가 집구석에 죽은 사람들 사진을 붙여뒀?”

그제야 조카가 통역을 재개했다. 전종구가 품 속에서 딸아이의 실내화를 꺼내 보였다.

“이것이 왜 너희 집에 있어?”

“.....”

“이것이 왜 죽은 사람들 사진 한 가운데에 있냐고.”

“.....”

“너 뭐여? 너 머허는 새끼여?”

“.....”

"말 못허겠지. 말허은 맞아 뉘질텐께."

"....."

"니가 이 동네서 먼짓을 허는지 알고 있어. 내 딸헌티도 먼짓을 헐는지 알고 있고."

"....."

"나는 니가... 그냥 허던 짓거릴 멈추고... 조용히 이 동넬 떠나줬음 좋겠다."

"....."

"믿기지 않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내 딸헌티 먼일이 생기면... 년 뉘져. 널 죽인 담에 토막을 내가 저 산 속에 던져버릴 것이여."

"....."

"여긴 곡성이여. 내 나와바리. 너겔은 쪽바리 하나 없어져 봤자 누구도 신경 안써."

"....."

"괜히 시덥잖은 짓거리 허다 개죽음 당허지 말고 떠나."

당혹스런 얼굴의 조카가 통역을 마쳤다. 일본인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입을 닫고 있었다.

"사람이 이만큼 말을 헐으면 대답을 허던가. 고개라도 고덕여. 이 씨벌놈아."

"....."

"니는 내 말이 믿기지가 않는가보다."

그러자 전종구는 밖으로 나가 집 옆에 놓인 낡은 곡괭이를 들더니 집 밖의 제단을 부수기 시작했다. 돌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제기들이 나뒹굴었다. 그런데 이 정도론 겁을 주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뭔가를 더 보여줘야 했다. 전종구는 자신을 향해 짓고 있던 개를 노려보며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두 눈을 질끈 감고 찍어 죽였다. 난자당해 늘어진 개의 피가 전종구의 얼굴에 튀어 올랐다. 부엌에 있던 일본인에게 죽어가는 개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믿겼냐?"

"....."

"정확하게 삼일 즐겨. 삼일. 삼일 안에 짐 챙겨 떠나. 안 그럼 저 개새끼 꿀 날 것인께."

"....."

"머허. 통역 안허고. 통역허."

개를 죽이는 모습을 봐서인지 녀이 나간 조카가 통역은 않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통역허라고!”

그제서야 통역을 하는 조카였다. 말귀를 알아들은 일본인이 전종구를 노려 보았다.

“곤조부리지 말어. 곤조는 말어. 상대를 보가며 부리는 것이여.”

“.....”

“닌 사람 잘 못 건드렸어.”

그렇게 말을 남긴 전종구는 일본인의 집을 떠나갔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파출소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성복인 왜 전화가 안 돼? 걸근을 허? 왜?”

전종구는 조카를 슬쩍 바라보았다. 조카는 일본인의 집에서부터 녀이 나가 있었다.

“너 말어. 시방 서에 전화허서 외국인 신원 조회 좀 허달라 그려. 이, 일본놈이여. 아 거기 한국 직원이 있을 거 아녀. 나.. 나카무라... 히데... 히데요시. 나카무라 히데요시. 여권번호가...”

수첩에 적힌 일본인의 인적사항을 읊은 전종구가 사유를 묻는 직원의 질문에 답했다.

“그냥 니가 알아서 둘러 대. 적당히. 그려”

전종구가 전화를 끊자 차 안엔 불편한 침묵이 계속됐다. 좀 전의 일이 조카에겐 충격일 수 있었다.

“미안허다. 니가 그려도 명색이 종교인이다... 니 앞에서 개까지 죽인 것은...”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녀라.”

전종구의 행동에 불쾌해 하는 줄 알았던 조카가 난데 없이 얘기를 꺼냈다.

“그 사람말요. 경사님이 개 죽일 때...”

“이.”

“그 사람 웃고 있었어라.”

이 말을 들은 전종구가 조카를 쳐다보는데 순간, 그의 차 앞으로 웬 고라니 한마리가 뛰어들었다. 전종구는 급히 핸들을 꺾었고 빗길의 차는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다. 마주오던 화물차가 급히 제동을 걸며 미끄러져 다가왔고, 결국 코 앞에서 멈춰섰다. 놀란 고라니가 전종구를 뺨히 쳐다보더니 숲 속으로 사라졌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놀란 들이었다. 들의 머릿속으로 일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시각, 일본인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제단 구석에 앉아 죽은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무슨 감정 상태인지 짐작도 안 되던 그가 갑자기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다. 숲 저편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의 고라니였다.

14. 徵候 징후

“은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성당 앞에 세워진 차 안이었다. 전종구와 조카가 얘기를 마저 나누는 중이었다.

“월까요? 도대체.”

“니는 뭐라고 생각허는디. 그 새끼가.”

“그냥... 아주 사악한...”

“.....”

“소문은 들어봤죠? 그 사람 소문.”

“이.”

“그냥 소문이겠죠?”

“.....”

저편으로 신부와 수녀들이 성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조카는 들어가보아야 한다며 차에서 내렸다. 찝찝한 기분이 더 해져 갔다.

성당을 떠난 전종구는 집으로 향했다. 그는 아이의 공책을 부인에게 펼쳐 보이며 어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춘기라고 이러지는 않아.”

부인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잘 생각해 보라고. 며칠 전부터 아헌티 생긴 일들. 문제가 있어. 분명히.”
“.....”

“나랑은 안 가려고 할텐께. 아 학교갔다 오거들랑 병원 좀 데리고 가봐. 읍내에 피부과 있제. 내가 전화해 놓을텐께.”

불안한 얼굴의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나선 전종구는 오성복의 집으로 향했다. 불쑥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서 불일을 보던 모친이 맞이했다.

“아니 저 들 떨어진 새끼가 세상에 무섭다고 회사를 안 나가. 널 모레 마흔인 새끼가.”

“시방 안에 있어요?”

“아 몰러. 문 걸어 잠그고 미친놈이.”

전종구가 방문을 돌리니 잠겨 있었다.

“암만 내 자식이지만 저 새끼 참말 이상혀. 걸 늑어 가지고. 같이 나가든 부분줄 안당께.”

전종구가 꼬챙이를 주워다가 방문을 따니 이번엔 열리지가 않았다. 슬쩍 들여다보니 문 안에 집기를 쌓아 출입을 막아 놓은 것이 보였다. 전종구가 힘을 쥐 문짝을 밀치고 들어갔다. 커튼을 쳐 컴컴한 방 구석에 오성복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보니 한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이 미친 노무 새끼.”

잠시 후, 부인은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를 데리고 피부과를 찾았다. 어린 환자와 보호자에게 능담을 던지며 별 거 아닐 거라는 듯 딸아이의 셔츠를 걷어올린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배꼽에서 시작된 질환이 옆구리를 타고 가슴까지 번져 있었다. 발갛게 부어오른 피부로 물집들이 잡혀가는 중이었다. 의사는 익숙한 이 질환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는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음... 간지러웠겠네?”

“야.”

“한 일주일 됐다고?”

“야.”

“음... 별것은 아니다. 일단 검사는 허봐야 겠으께 의뢰서를 써드릴께. 바로 광주가서 검사 좀 받아봐요.”

“병이 좀 심각한 것인가 봐요.”

“아아 아녜요. 혹시나 허서 그런거요. 아직 어린 데다 가시나니께 확실허게 할라고.”

“.....”

“걱정 말아요. 암것도 아닐텐께.”

당황한 얼굴로 달래는 의사의 말이 부인을 더욱 불안케 했다. 그런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자 의사는 전종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자넨가? 시방 다녀갔는디... 똑같여. 그 병이여.”

순찰차 속에서 의사의 전화를 받은 전종구는 짧은 대답만 건네고 전화를 끊었다. 난감한 얼굴의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것이... 자꾸 헛 것이 보이는거요...”

전종구의 상황도 모른 채 조수석의 오성복은 자신의 이야기를 중얼대고 있었다.

“벽 속에서 웬 남자 새끼 얼굴이 자꾸 보이는디... 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언 놈인지 자꾸 문을 따고 들어올라 허는거요.”

전종구가 그의 얘기를 듣는 것인지 딸아이를 걱정하는 것인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새끼가 이번엔 날 죽일라 허는 거 같소..."

"....."

"지 정체가 탄로났다고..."

전종구의 머릿 속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었다.

한편. 딸아이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던 부인은 조수석에 앉은 아이를 살피고 있었다. 아이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만 좀 힐끔힐끔 보지?"

쳐다보지도 않으며 비아냥거리는 아이였다.

"뭐, 뭣을."

"그만 좀 보라고. 짜증나니까."

"알았어."

아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알긴 뭘 알어..."

잠시 후, 광주의 종합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잡다한 검사를 해댔다. 혈액을 채취하고, 스캔을 하고, 조직을 채취하고, 신경을 검사하고... 머리와 온몸에 온갖 선들을 연결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을 쫓아가보니 유리막 너머 복도 끝으로 어떤 남자의 실루엣 보였다. 발광하는 빨간 두 눈. 기다란 손톱과 피부에 자라난 긴 털들. 환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일본인은 여전히 제단 옆에 앉아 죽은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킁킁한 오밤 중에 그렇게 앉아 죽은 개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모습은 무섭기 그지 없었다. 그런 그가 일어나 숲 속을 향해 걸어갔다. 아침에 고라니가 서 있던 위치였다. 그 곳에

다다르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숨을 거둔 고라니가 드러누워 있었다. 일본인은 그 고라니의 다리를 잡더니 그것을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밤 늦게 퇴근한 전종구는 차 속에서 부인에게 아이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부인은 검사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며 사춘기의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의사의 짐작을 전했다.

“솔직하게... 아 몸에 생긴 것들 말여.”

얘기를 들은 후 한참을 고민하던 전종구가 입을 열었다.

“돼지 농장 흥국이. 목 메고 죽은 불난 집 여자. 마누라 죽인 박준배.”

“.....”

“으사가 그러는디... 그 세 명도 몸에 똑같은 것들이 있었디야.”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먼 일인지 심증이 가는 데가 있는디. 말이 안 디어서. 나도 위떡허야 혈지를 모르겠다.”

“먼디.”

“.....”

“아 말혀 봐.”

“동네에 일본 놈 있제?”

“이.”

“아무려도 그 놈 때문인 거 같어.”

“그게 먼소리여?”

“그것이 말여...”

“.....”

“아니다.”

전종구가 말하려다 말고 차에서 내렸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남에게 얘기하긴 너무나 허황된 말 같았나 보다. 차 속에서 머라 떠들어대는 부인을 뒤로 한 그가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아이를 걱정 가득한 눈으로 지켜 보았다. 아이는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던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아이는 눈을 떴다. 무슨 생각인지 이상한 눈빛을 한 아이가 책상 밑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조카는 성당의 예배당에 앉아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창문 하나가 열리며 촛불이 흔들거렸다. 긴장한 그가 창문을 닫으려 하는데 창문 너머 컴컴한 저편에서 뭔가가 보였다. 발광하는 빨간 색의 두 점이었다. 차량의 불빛 같았으나 누군가의 시선처럼 보였다. 겁을 먹은 사제가 창문을 닫았다.

이불 속에 누운 오성복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귀로 뒷마루가 삐걱대는 소리, 문짝을 긁어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 막는데 이번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그가 이불을 젖히고 보니 실제로 문고리가 돌아가고 있었다. 겁에 질린 오성복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져갔다.

15. 鬼神 귀신

다음 날 아침. 부인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깬 전종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헐떡였다. 악몽을 꾸 모양인 그는 잔상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문 밖에서의 소란이 끊이질 않았다. 부인과 장모의 비명과 소란이었다.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한 전종구가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처박혔다. 몸의 반이 말을 듣질 않았다. 마비가 온 것이다.

그 시각 대문 앞의 부인과 장모는 누군가가 던져 놓은 동물의 사체를 보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다. 너털너털하게 잘려나간 고라니의 머리였는데 기다란 척추뼈가 달려있는 상태였다. 장모는 두려운 얼굴로 도사의 얘기를 떠올렸다.

“전서방 불러라.”

장모의 말에 부인은 남편을 부르러 방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방바닥에 처박혀 어쩔 줄 몰라하는 전종구와 눈이 마주쳤다. 부인을 본 그가 머라 말하고자 했으나 소리가 나질 않는 상태였다. 침을 흘리며 한쪽의 몸으로 버둥대는 전종구를 보고 부인이 또 다시 비명을 질러댔다.

오성복의 모친은 부엌에서 닭의 배를 가르고 있었다. 종알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기가 쇠해져 헛짓거리를 하는 오성복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제 밤에 어머니가 방문 두들겼소?”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언제부터인지 오성복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출근을 하려다 들른 모양이었다.

“깜짝이야. 미친노무 새끼...”

“어머니가 두들겼냐고. 방문.”

“나가 니 방문을 왜 두들겨, 이 실없는 놈야.”

대답을 듣자 일어난 오성복이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대문 앞으로 처음 보는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길고양이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 위에 알록달록한 가디건을 입은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일전에 전종구가 박춘배의 집에서 마주쳤던 여자이기도 했다. 여자는 정신이 나갔는지 그를 보며 히죽 웃었다.

“아저씨 집이여?”

“누구요?”

“아저씨랑 누구랑 사는디?”

“어니랑... 근디 누구요?”

“.....”

“이 동네 이사온 거요?”

여자는 계속해서 웃을 뿐 대답이 없었다. 품 속의 고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소리를 냈다. 오성복은 동네에 이사를 온 정신나간 여자겠거니 생각하고는 파출소로 향했다.

잠시 후. 한의원을 찾은 전종구는 수십개의 대침을 꽂은 채 병실에 누워 있었다. 입술이 돌아가 있고, 한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불편하긴 했으나 많이 호전된 상태였다. 한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근심 가득한 부인의 옆으로 굳은 얼굴의 장모가 전종구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된 것이여. 맘 단단히 먹어.”

"....."

"어제 새벽에 말했던거. 내일 당장에 허기로 했어."

"아는 워딴어?"

"딴소리말고. 그러기로 했으니 돈 준비허라고."

"아 워딴냐고."

"아가 집에 있지. 워딴어. 옆집 할매헌티 좀 봐달라 그랬어. 신경꺼."

"아니 아를 두고 여길 다 오든 워짜. 정신이 있는겨?"

그렇게 식구들 모두가 전종구에게 와 있는 사이. 잠자던 딸아이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고, 그러자 아이의 이불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아이는 기분이 좋았나보다.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척였다. 그런데 다리 어디께에 뭔가 이질적인 것이 느껴졌다. 잠에서 깬 아이가 이불을 젖히자 털이 수북한 빨간 눈의 괴물이 나타났다. 놀란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놓인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괴물을 향해 그것을 휘둘러대기 시작했다.

한의원의 전종구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모두의 제안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다. 딸아이가 걱정되서였다. 환자가 나가니 가족들도 따라나설 수 밖에 없었다.

"시방 니가 신호지킬 때냐?"

운전 중인 부인에게 쓴소리를 던지는 전종구였다.

잠시 후. 그들이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지금껏 걱정했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와 피범벅이 되어 방바닥에 나뒹구는 노인을 보게 된 것이다. 가위를 든 피투성이의 아이는 방구석에 기대 앉아 무섭게 떨고 있었고, 그것에 수차례 찢린 것으로 추정되는 옆 집 할머니는 살기 위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들과 구급대원들로 전종구의 집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할머니를 실은 앰블런스가 급히 출발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할머니의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경찰 가족의 충격을 달랬다.

"아가 엄청 놀랐을 것인디. 잘 달래줘요."